

與 “오늘 공수처법 통과 문제 없다”

4+1 협의체 “공조 굳건... 검찰 개혁법 통과 확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헌법 소원 등 총력 저지”

여야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앞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30일 새 입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일부 등 4+1 내부의 이탈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의결 정족수(148인)를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인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4+1' 내부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입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난폭한 국우 정치라든가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이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혀 '4+1' 공조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개기 입시국회'를 통해 공수처법안을 시작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법을 모두 처리해가겠다는 생각이다. 30일 시작되는 입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찰청법을 상정한 뒤, 31일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 달 6일 다시 입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같은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본회의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4+1'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현재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법여권 성현으로 분류됐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찬성했다.

반면 '4+1' 소속 군소정당은 4+1 공조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정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수처법과 검정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점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④ 총선 라운지

이형석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신뢰 회복 필요” 조오섭 “현역 의원들 검찰개혁법 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열린 제193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동계와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최근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이 열렸지만 좌우 날개로 날아야 할 광주형 일자리가 한쪽 날개가 고장난 채 이륙하는 불안한 모습이다”면서 “광주시와 글로벌모터스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하루속히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라 시·도민의 84%가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정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일부 의원들도 선거법 표결에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법안, 검정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무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시·도민들의 84% 찬성여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지역 의원 공수처 반대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광주·전남 국회의원 3인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발목잡기일 뿐”이라며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자마자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슬러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정치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시중 “선거법 개정은 새 정치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박시중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은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개정안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라는 오명을 씻었다”며 “최근 공약으로 발표한 5.18민중항쟁, 광주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UN민주주의 본부’의 광주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직선거법은 개정을 통해 비례성 강화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의 정책과 입법에 담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병원 “농촌 경제 일으켜 세울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원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화순 복지관을 돌며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농업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무너진 농촌경제를 속도 증가로 일으켜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지난 40년간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과 동고동락한 농업 전문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농업과 농촌 현장과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자”라며 화순의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정책 추진에 헌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정훈 “혁신도시 정주 환경 획기적 개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지역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신 예비후보는 “내년 총선은 나주·화순 지역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대통령 국정철학과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예비후보는 “한전공대, 에너지밸리, 생물의약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영산강 고대문화 복원 사업을 실현하겠다”면서 “혁신도시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분권과 균형발전의 아이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2호 영입’ 역경 극복 20대 청년 원종건 씨

2005년 MBC ‘느낌표’ 출연 시각장애인 어머니 사연 화제 봉사활동·선행 이어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맨 오른쪽) 씨가 29일 국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원종건(26) 씨를 내년 총선 ‘영입인재 2호’로 29일 발표했다. 지난 26일 발레리나를 꿈꾸던 여성 적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로 ‘영입인재 1호’를 공개한 뒤 3일 만에 ‘이남자’(20대 남자)인 두 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한 것이다.

원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2005년 MBC 방송 프로그램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다. 당시 심장 질환을 앓고 태어난 여동생이 스웨덴으로 입양되고 아버지는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뒤 사·청각 장애인인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던 원 씨의 사연은 많은 시청자를 울렸다.

방송을 통해 어머니가 각막 기증을 받아 개인 수술을 한 뒤에는 각계 후원 의사를 사양하고 폐지 수집으로 복지시설 기부,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사 연결 앱 개발 등 봉

사활동과 선행을 펼치며 지내왔다. 2015년에는 삼성행복대상 청소년상을, 2016년에는 대한민국 인재상과 서울시 청년상을 각각 수상했다.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원 씨는 현재 이베이코리아 기업홍보팀 소셜임팩트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인권과 처우 개선,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주제로 강연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 씨의 멘토 의원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을 지명했다. 민주당은 내년 설 연휴 전까지 10여명의 영입인재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민주, 현역 불출마 지역 전략공천 검토

선거구·후보자 심사 돌입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고 전략 선거구와 후보자 심사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나는 당 대표를 맡으며 전략지역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당규에는 20%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지역위원장으로는

도저히 선거가 안 되며, 좋은 사람이 대안으로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전략지역으로 선정해서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며 “그동안 전략지역을 잘못 선정해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강조했다.

전략공천위 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은 “전략 지역 및 후보자 선정이 민주당의 정체성·개혁성·확장성을 대내외에 보여주게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상황과 예비후보자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로 검토해 위원들과 당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의 전략선거구 선정기준이 6개 항목으로 명시됐지만,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략선거구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대상이 되는 선거구를 하나하나씩 ‘달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하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박올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89억6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41억9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온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주 택** 광주 동구 계림동 570-6 토지 : 218㎡(65.9평) 건물 : 80.39㎡(24.3평) **감정가 2억4천1백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최저가 (70%) 7억2천2백6십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1천8백5십만원**
- 아 파트**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6차 42평 **감정가 6억6천8백만원, 최저가 (70%) 4억6천7백6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